

오늘은 2020년 3월 두번째 주일입니다.  
2020 3월 8일 언약교회 이모조모입니다.

- 1)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2)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실수도 있겠지만, '방문자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에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득불 아이들이 조금씩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이 익숙치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 뒤쪽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더 조용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공지입니다>

- 1.주일 오전예배는 특별한 공지가 없는 한 계속 드립니다.
- 2.다만, 열이나 기침등 증상이 있으신 성도분들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 3.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염려가 되시는 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셔도 됩니다.
- 4.죄송스럽지만, 앞으로 당분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려는  
다른 교회 성도분들은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타교회 성도분들 예배 가능한지 공지하겠습니다.  
혹시 꼭 예배드리러 오실 분은 미리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pastorcho@hanmail.net\)](mailto:pastorcho@hanmail.net)

1. 오늘은 여러 지체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교제하며 지냅시다.

오늘 장년 64명, 중고등부 3명, 초등부 10명, 유년부 4명, 유치부 5명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 2. 3월은 <영적, 육적 가족들을 격려, 권면>하는 달입니다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합시다.

3.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오늘(3월8일) 점심식사 및 오후모임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매주일 결정해서 통지하겠습니다.  
(현재는 점심식사 및 오후모임과 관련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 합니다.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등 상황이 안정되면,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4. 하지만, 오후모임 및 주일학교 모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모임이라는 강제성을 없앴을 뿐, 오후모임과 주일학교 모임은 지금껏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오후 모임등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보통때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5. 오늘은 점심으로 김밥등을 준비했습니다.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6. 아침예배, 주중성경공부 모임(수요일, 금요일)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워낙 소수가 참여하고 있고, 모두의 상황등을 잘 알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7. 다만, 목요일 아침 기혼자매조 성경공부 모임은 초등학교 개학 이후에 시작하겠습니다.
  8. 유스 오케스트라 연습은 3월22일에 할 예정입니다.
  9. 주일 오후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재 등을 주일오전예배 때 받아가시고,  
혹시 못나오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드릴테니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출국(이철영-필리핀, 출장)
  11. 교회 계좌로 직접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6 001 04 148 682 언약교회**  
**우리은행 1005-901-708982 언약교회**  
**신한은행 100-032-008667 언약교회**
- 이번 한주간 동안도 다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